

SPECIAL REPORT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독일 바우하우스는 지식혁명 일군 '인류 첫 창조학교'

오래전 권이 한창 인기 있을 때 나는 그저 '보헤미안 랩소디'의 '갈릴레오' 부분만 열심히 따라 불렀다. 다른 가사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가사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에서야 비로소 이해한 발라드 시작 부분의 가사 내용은 이렇다. "Mama, just killed a man(엄마, 방금 한 남자를 죽였어요), Put a gun against his head(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Pulled my trigger(방아쇠를 당겼어요), Now he's dead! (그는 죽었어요!)" 그 멋진 멜로디의 가사가 "그를 죽였다"는 살벌한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척 황당했다. 도대체 프레디 머큐리는 누구를 죽인 것일까?

아버지다.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자이기에 자신의 '남성성'을 죽여 버렸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유럽에서 '아버지'는 전통·권위를 포함해 젊은이들을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윤리와 도덕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다. 68세대가 그랬고, 히피가 그랬다. 서양의 모더니티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죽이는 과정'이었다. 프레디 머큐리가 "죽였다"고 부르짖었던 '그'는 바로 이 '아버지'였다. 이성에만을 '정상'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억압하는 '아버지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프레디 머큐리의 저항인 것이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부터 '아버지의 나라(fatherland·독어로는 Vaterland)'를 거부한다. '보헤미안'이란 관습과 전통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적 삶을 의미한다. 세기말 유럽의 예술가들은 '보헤미안'을 자처했다. 푸차니의 오페라 '라 보엠(La Boheme)'의 주인공들은 시인·화가·철학자·음악가와 같은 보헤미안들이다. 당시에는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예술가였다.

세기말 유럽 예술가들 '보헤미안' 자처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서구사회의 '살부(殺父)' 전통을 구체화했다. 《토템과 타부》(Totem und Tabu)라는 책에서다. 1913년 출간된 이 책에서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에서 출발한 자신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집단 무의식까지 확대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처음으로 개념화된 것도 바로 이 책에서다.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가 자신이 쓴 책 중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책이 될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자부심과는 달리 '토템과 타부'는 가장 격렬한 비판에 부딪힌 책이 되었다.

인류의 종교와 사회 제도의 출발을 프로이트는 원시 시대의 토템 추제를 통해 설명한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모든 여자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아들들은 합심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시체를 나눠 먹는다. 아버지의 시체를 먹는 행위는 아버지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다. 아버지의 능력과 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인 것이다. '살부'의 행위는 이렇게 '경외심'과 '적개심'의 양가적 감정이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시체를 먹는 추제를 통해 이 같은 양가적 감정을 해결했다(근대에 들어서면서 이 같은 추제는 '혁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 하연간 기막힌 프로이트의 상상력이다.

아버지를 죽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의식'이 아들들에게 남겨졌다. 또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아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광란의 추제가 끝나면 반드시 이런 혼란과 허탈함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공포에 사로잡힌 아들들은 해결책을 고안해낸다. 두 가지 '타부'다. 우선 아버지를 대체하는 토템동물을 만들고 살해를 금지한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계속 살아 있는 것이 되고, '살부'의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타부는 아버지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획득물을 다 함께 포기함으로써 형제들 간의 갈등을 뿌리부터 없애버린 것이다. 토템 타부는 '종교의 기원'이 되고, 근친상간 타부는 '사회제도의 기원'이 된다.

인류의 종교와 사회 제도의 출발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살부'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 이끌어낸 프로이트의 놀라운 상상력 덕분에 서구의 모더니티는 '혁명'을 사회발전을 위한 정당한 과정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크게 영향받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오토 그로스(Otto Gross·1877~1920)는 '살부'와 '혁명'을 보다 명확하게 연결시켰다. 아나키스트였던 오토 그로스는 발헬름 라이히와 더불어 정신분석학의 '과격분자'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정신분석학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두 사람 모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회에서 쫓겨났다.

프로이트가 《토템과 타부》를 열심히 쓰고 있던 1913년 4월 오토 그로스는 베를

린에서 발행되던 잡지 '악치온(Aktion)'에 '살부'를 혁명과 연결시킨 '문화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발표한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무의식에 관한 심리학의 도움으로 남녀관계가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혁명가들은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폭력인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력에 맞서 싸운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기도 했다.

수년 전 독일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책 《1913년:세기의 여름》의 저자 플로리안 일리스는 1913년을 아예 '살부의 해(das Jahr des Vatermords)'로 규정한다. 이전 시대를 지배했던 가치체계를 뒤집어놓은 '살부'의 세계관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살부'와 관련 숫자가 아닌 내용으로 구분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20세기라고 부르는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1914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한다. 절망·허무·퇴폐의 '세기말(Fin de Siecle)'이라는 우울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시절'을 뜻하는 '벨 에포크(La belle époque)'라고 긍정의 의미로 불리기도 하는 19세기는 아버지를 죽인 1913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고 플로리안 일리스는 주장한다.

서구의 20세기적 모더니티는 '살부'로부터 시작한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시체를 나눠 먹는 광란의 추제가 끝난 후 공포와 혼란에 빠진 '토템과 타부'의 아들들처럼 인류는 '살부의 해'인 1913년이 지나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다. 약 1000만 명이 죽고, 약 2000만 명이 부상당한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말에 시작돼 1918년 11월에 끝났다. 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전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바우하우스 100주년
1차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
14년만 운영했는데
디자인에 큰 영향
가치관 뒤집는 혁명
본질은 '살부'
20세기 모더니티는
여기서 시작돼

쟁이 끝난 후 패전국의 명예를 뒤집어 쓴 독일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에서는 '살부'의 첫 열매로 '바우하우스(Bauhaus)'가 설립된다. 1919년의 일이다.

바우하우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에 개교해서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까지 불과 14년 유지됐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친 바우하우스의 영향은 엄청나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사소한 물건에까지 개입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영역이 바로 이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통합'을 추구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통합'을 추구한 '산업계몽주의'라 불리는 '지식혁명'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지식혁명'이었다.

'혁명(revolution)'이란 단어는 원래 라틴어 '회전·순환'을 뜻하는 'revolutio'에서 유래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에서 사용한 'revolutio'는 '회전'을 뜻하는 것이었다. '혁명'이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뜻하게 된 것은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에서부터다. 정치적 영역에만 사용되던 '혁명'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산업혁명' '과학혁명'과 같은 개념으로 그 외연을 확장했다. 앞서 설명한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전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놓은 '혁명'의 본질은 '살부'에 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아주 '혁명'과잉이다. 그런데 많이 어색하고 이상하다. 언젠가부터 모두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이야기하는 까닭이다. '1차 산업혁명'이 1760년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화?기계화를 뜻한다는 것은 다들 안다. 그러나 도대체 '2차' '3차' '4차 혁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려면 도대체 이전 시대와 어떻게 투쟁하고,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살부'의 기억은 전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기술발전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사진·윤광준>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신양파크호텔 www.shinyangparkhotel.com